

초등학생이 지각한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박진희** · 장유진***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가 거부민감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전북 소재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부민감성이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며,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및 학교수업 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뿐 아니라 낮은 외모만족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갖는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 초등학생

I. 서 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시작으로 가정에서의 적응을 시작한 아동은 가정에서 학교로, 다시 사회로 삶의 적응 공간을 확대해 가며 사회 규범과 지식을 습득하고, 주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간다.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고(성미향, 2006),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반면(정화실, 2009), 자살생각(고두훈, 2008)이나 우울 수준(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을 낮추어 주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한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본 논문은 박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이리남초등학교 교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선행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훨씬 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이원이, 김동일, 2009),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노력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 중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변인 중 하나가 외모만족도인데, 사춘기와 맞닿아있는 고학년일수록 외모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증가하여 외모만족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신명희 외, 2013). 외모에 대한 예민함, 또래와의 신체비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의 결과로 특히 사춘기 아동들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05; 심경옥, 2006; 이주아, 2005; 조영미, 2005, 한상숙, 2006). 외모만족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송연수, 2009; 하정혜, 2011; 허정문, 김정엽, 2012)과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과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김형미, 2011; 이강녕, 2005)은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가 누적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의 하나로 외모만족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두 변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 노력은 자아존중감(이규옥, 2009; 허정문, 김정엽, 2012), 대인관계(하정혜, 2011), 사회적 지지(채지연, 2014) 등과 같이 손에 꼽힐 정도로 소수의 변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실증 연구는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모만족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족이나 또래의 평가, 타인과의 비교, 대중매체와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 기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박우철, 2009; 이주아, 2005; 조영미, 2005), 이러한 외모만족도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교사와 또래 관계가 핵심을 이루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환경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인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미라, 2009), 이처럼 외모만족도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 관련 변인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결 짓는 매개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을 상정하였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타인에게 수용과 지지를 구할 때 자신이 거절당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불안해하고, 그러한 불안 때문에 거절과 관련된 단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며, 거절의 단서가 매우 약하거나 모호하더라도 그것을 의도적인 거절로 지각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인지-정서적 처리 성향(a cognitive

-affective processing disposition)으로 정의된다(Downey & Feldman, 1994). 이러한 거부민감성 개념은 Dodge(1980)의 사회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인지적 과정이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주어진 사회적 정보나 단서를 현실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왜곡해서 지각, 해석하게 되면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김은경, 2011).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거부와 관련된 사회적 정보와 단서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성향인 거부민감성은 편파적, 왜곡된 지각과 해석을 낳게 하는 개인내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Downey & Feldman, 1996), 외로움, 사회적 불안, 우울 등의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yduk et al., 2000). Bowlby(1980)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서는 어린시절에 거부당한 경험이 불안정한 내적 작동 모델(insecure 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며 이러한 작동 모델이 이후의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애착이론은 이렇게 형성된 작동 모델이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한 인지, 정동(affect) 및 행동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거부민감성 개념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유사하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후자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염려라면 전자는 거부를 예상하는 보다 특정한 근심으로 구별될 수 있다(Fang et al., 2011).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과잉반응으로 인해 아동들은 여러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것이며, 그 결과 또래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축으로 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내적인 어려움과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교적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인데,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가정을 벗어나 교사 및 또래와 인간관계를 맺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부민감성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심리적 문제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거부민감성을 잠재적인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낮은 외모만족도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 대해 어떤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발달단계상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보이며 외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외모에 대한 자아상은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자아개념 형성에도 중대한 파급력을 갖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신명희 외, 2013; Murphy, 2008).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아동들의 외모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연구결과(예, 김은경, 2005; ; 이영미, 2004)를 감안할 때, 이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의 저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실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 간에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대중매체를 통해 외모 지상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한상숙, 2006).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고, 내면화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다(Jones, 2004). 그 결과,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류애리, 송원영, 2013; 박우철, 2009; 이주아, 2005; 조영미, 2005),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05; ; 이영미, 2004).

외모만족도는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로 정의된다(최민호, 2006).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함으로써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아, 2003). 외모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Mendelson과 White(1993)가 제안한 신체존중감(body estee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들은 신체존중감을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평가로 정의하였다.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타인과의 비교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또래나 부모의 태도, 평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이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며 이를 토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최미라, 2009), 외모만족도가 높은 아동들은 외모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자기 격려 수준이 높고(전은혜, 2013)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여(채지연, 2014) 타인

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외모만족도는 개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울, 적대감, 불안 등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아, 2003; 한상숙, 2006),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자기표현을 잘 하고 대인불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균량, 이완정, 2008).

거부민감성은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경험들이 이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80)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인생 초기의 거부나 거절 경험들이 현재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인지-정서적 과정을 설명한 개념이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은 거절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 방어 의 일환으로 불안을 동반한 거절에 대한 예상을 만들며, 이러한 예상이 인지-정의적 매개체(cognitive-affective mediator)가 되어 상대방의 거절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을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거나, 수동적, 회피적인 대처방식과 감정 억제 경향을 유발하게 된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실제로 거부하도록 만들며, 이것은 다시 그들의 거절에 대한 예상 반응을 강화하여 악순환을 형성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Feldman & Downey, 1994).

Downey et al.(1998)은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며, 거부민감성은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Downey와 Feldman(1996)는 중요한 타인에게 거절될 것으로 예상할 때 강한 예기불안(anticipatory anxiety)이나 분노를 느끼며, 이러한 자기 방어적인 반응은 분노, 적대감, 상호작용 회피 및 철수 등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고(김나영, 2009; 문희경, 2013), 거부되는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을 보이며(손은경, 2011),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인식하거나(정지연, 2012),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홍상황, 박혜정, 2013)이 발견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의 수업과정과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접하는 여러 교육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여건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심경옥, 2006).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합의 수준은 매우 높은 데 반해,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시각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김정남, 2013). Baker와 Siryk(1984)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으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학교 소속감을 포함시켰고, Scott과 Scott(1998)은 학교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만족감과 학문적인 성취, 교사가 평가한 객관적인 학문적 수행이라는 2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김용래(1993)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학교환경 적응, 학교교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 적응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 데 반해, 문은식(2002)과 김영미(2006)는 학업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정의적 적응행동의 3가지로 제시하였

다. 천석우(2009)는 학교생활적응이 교사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과 같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고 보았다. 또다른 다수의 학자들(이경화, 2005; 이명숙, 이규민, 2009; 홍성훈, 김희수, 2005)은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가 명칭 상으로는 상이하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중복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경옥(2006)의 개념적 정의에 바탕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구인(construct)으로 가정하였다.

2.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및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의 관계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은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의 긍정적 지표와는 정적인 관련성(송연수, 2009; 이운정, 정찬주, 2009; 하정혜, 2011; 허정문, 김정엽, 2012)을 보이는 반면, 부적응 성향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와는 부적인 관련성(김은경, 2005; 심우엽, 2012; 조미라, 2011; 한미라, 1996)을 보인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보고해 왔다. 또한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이나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다(김형미, 2011; 이강녕, 2005)는 연구 결과 역시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지지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가 또래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그들의 인지, 정서 및 행동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다수의 연구들(김경아, 2003; 김복숙, 2008, 심우엽, 2012; 조미라, 2011; 전은혜, 2013; 한미라, 1996; Downey & Feldman, 1994; Downey, Feldman, & Ayduk, 2000)은 낮은 외모만족도가 거부와 관련된 사회적 단서에 대한 아동의 예민성을 증가시킨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들도 소수 존재하는데, 김정희와 이지연(2010)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공영길(2009)은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검토한 가장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Downey et al.(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이 1년 후 자기 보고와 교사 보고, 학교규칙 위반기록 등에서 1년 전보다 더욱 피해자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래에게 더 빈번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학교생활에서 또래나 교사 등 다른 어른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결석, 정학, 유급 횟수가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거부

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 요인 중 또래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명한 일련의 국내 연구들(박우람, 홍상황, 2015; 홍상황, 박혜정, 2013; 홍상황, 이경연, 2013)은 거부민감성이 또래괴롭힘 행동 및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권금진, 2009; 문은식, 김충희, 2002; 심경옥, 2006;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13; 이애옥, 2008)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3가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변인 간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연구 결과와 이론적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거부와 관련된 사회적 단서를 편파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결과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약화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인지-정서적 처리 성향인 거부민감성을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낮은 외모만족도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북 J시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8개 학급과 G시에 소재하는 K초등학교 3개 학급의 6학년 총 3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2개 초등학교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총 학생수가 약 900명, 학급당 학생수가 약 30명인 대규모 학교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28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중 남학생이 142명(49.1%), 여학생이 147명(50.9%)으로 나타나 성별 구성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외모만족도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과 White(1993)가 개발하고 이주아(2005)가 번안한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묻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아(2005)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에는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 옵션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인데, 점수가 낮을수록 외모만족도는 부정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부정 진술문으로 구성된 9개 문항(4, 7, 8, 11, 12, 13, 16, 17, 20)은 역채점하였다. Mendelson과 White(1993)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 는 .85였고, 초등학교 4,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총 622명을 대상으로 한 이주아(2005)의 연구에서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나. 거부민감성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이하 CRSQ)는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또래관련 6가지 상황, 교사관련 6가지 상황)에서 예상되는 거절의 정도와 거절을 예상하면서 겪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예기 정서(anticipatory emotion)를 통해 거부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박지윤(2003)은 우리나라 아동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과 그 때 느끼는 정서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CRSQ에서 제시한 12가지 상황 중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적합한 4가지 상황을 선택하고 새롭게 8가지 상황을 추가하여 12가지 상황(또래관련 8가지, 교사관련 4가지)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박지윤(2003)은 우리나라 아동들은 거절을 예상했을 때 불안과 분노 이외에 낙담 반응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절 예기 정서(rejection-related anticipatory emotion)에 '우울'을 추가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박지윤(2003)이 선정한 12가지 상황 중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큰 6가지 상황(또래관련 4가지 상황, 교사관련 2가지 상황)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상황 각각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예기 정서(불안, 분노, 우울)를 6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고, 각 상황에서 자신이 수용 또는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를 6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였다. 각 상황에 대해 예기 정서와 거절 예상에 평정한 값을 곱한 후, 6개 상황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 합산치를 다시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평균값이 각각 거부불안 민감성, 거부분노 민감성, 거부우울 민감성 점수가 되며, 이러한 3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를 거부 민감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일어나

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을 쉽게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윤(2003)의 연구에서는 거부불안 민감성이 .88, 거부분노 민감성이 .86, 거부우울 민감성이 .89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거부불안 민감성이 .81, 거부분노 민감성이 .79, 거부우울 민감성이 .86, 전체 거부민감성이 .94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원칙도를 개발한 Downey와 Feldman(1996)이 거부민감성을 단일한 요인을 가진 구인으로 개념화한 점과, 본 연구에서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민감성 간의 상관관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r>.85$)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총점만을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현자(1999)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설문지'의 문항들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묻는 총 32개의 5점 Likert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영역을 크게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나누어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별 점수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에서 측정하는 내용과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출된 내적 일치도는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구성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하위요인	측정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교사관계	아동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 표현의 적절성 여부	8	.82
교우관계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습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	8	.78
학교수업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8	.76
학교규칙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정도	8	.73
계		32	.89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치도의 지표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기술적인(descriptive)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별 표본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외모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및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학적 특성

초등학교 6학년의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외모만족도의 평균은 3.1로 나타나 중간점(3점)에 근사하였으며, 거부민감성 총점의 평균은 5.8로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로는 거부 불안 민감성의 평균이 거부 분노 민감성과 거부 우울 민감성의 평균보다 높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거절 관련 상황에서 불안의 정서를 보다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평균은 3.5로 중간점(3점)을 조금 넘어 참여 아동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89)

구분	가능한 점수 범위	응답 점수 범위	평균(M)	표준편차(SD)
외모만족도	1~5	1.35~4.85	3.13	0.59
거부 불안 민감성	1~36	1~23.5	6.79	4.48
거부 분노 민감성		1~23	5.39	3.68
거부 우울 민감성		1~23	5.32	4.04
거부민감성 총점		1~22.72	5.83	3.89
학교생활적응 총점	1~5	1.72~4.84	3.49	0.48

2.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1	2-1	2-2	2-3	2	3-1	3-2	3-3	3-4	3
1. 외모만족도	1									
2-1. 거부 불안	-.34**	1								
2-2. 거부 분노	-.33**	.86**	1							
2-3. 거부 우울	-.36**	.87**	.90**	1						
총점	-.36**	.95**	.96**	.96**	1					
3-1. 교사 관계	.33**	-.31**	-.34**	-.29**	-.32**	1				
3-2. 교우 관계	.41**	-.43**	-.38**	-.39**	-.42**	.33**	1			
3-3. 학교 수업 적응	.47**	-.39**	-.45**	-.40**	-.43**	.71**	.41**	1		
3-4. 학교 규칙	.31**	-.08	-.18**	-.10	-.12*	.49**	.15*	.54**	1	
총점	.50**	-.40**	-.45**	-.39**	-.43**	.84**	.62**	.88**	.70**	1
M	3.13	6.79	5.39	5.32	5.83	3.35	3.79	3.54	3.27	3.49
SD	0.59	4.48	3.68	4.04	3.89	0.68	0.63	0.62	0.59	0.48

* p <.05, ** p <.01

우선, 각 변인의 총점과 하위요인 간 및 하위요인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부민감성의 3가지 하위요인들은 총점 및 상호 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주면서 기타 변인들과의 상관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3가지 요인들이 거의 유사한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어 거부민감성 총점을 매개효과 검증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면, 학교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들은 총점과의 상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중간 정도의 크기를 보였고 타 변인들과의 상관양상 역시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총점과 하위요인 점수 각각이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만족도는 거부민감성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r=-.36, p<.01$)을 보였다. 이는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외모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r=.50, p<.01$)을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교사관계($r=.33, p<.01$), 교우관계($r=.41, p<.01$), 학교수업($r=.47, p<.01$), 학교규칙($r=.31, p<.01$)과도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거부민감성의 총점은 학교생활적응의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r=-.43, p<.01$)을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인 학교수업($r=-.43, p<.01$), 교우관계($r=-.42, p<.01$), 교사관계($r=-.32, p<.01$), 학교규칙($r=-.12, p<.05$)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교규칙과의 상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가.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1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50, p<.001$),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변량 중 25%($F=93.10,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6, p<.001$), 거부민감성 변량의 13%($F=42.58,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외모만족도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거부

민감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beta = -.29,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였으나($\beta = .39, p < .001$), 그 영향의 정도는 .50에서 .39로 감소하였다.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35, p < .001$).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표 4>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R ²
			B	SE	β		
1단계	외모만족도	학교생활적응 총점	.40	.04	.50***	93.10***	.25
2단계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2.37	.36	-.36***	42.58***	.13
3단계	외모만족도	학교생활적응 총점	.32	.04	.39***	66.09***	.32
	거부민감성		-.04	.01	-.29***		

*** p < .001



[그림 1]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총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p < .001

나.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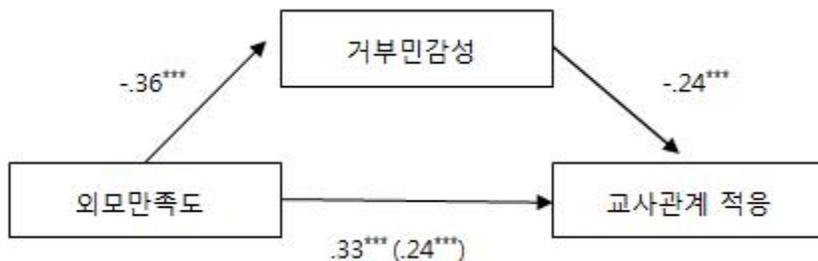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1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교사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3, p < .001$), 교사관계 변량의 11%($F = 33.81, p < .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beta = -.36, p < .001$), 거부민감성 변량의 13%($F = 42.58, p < .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외모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교사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beta = -.24,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모만족도가 교사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였으나($\beta = .24, p < .001$), 교사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33에서 .24로 감소하였다.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 = 3.53, p < .001$). 그러므로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표 5>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R ²
			B	SE	β		
1단계	외모만족도	교사관계	.37	.06	.33***	33.81***	.11
2단계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2.37	.36	-.36***	42.58***	.13
3단계	외모만족도	교사관계	.28	.07	.24***	26.19***	.16
	거부민감성		-.04	.01	-.24***		

*** p < .001



[그림 2]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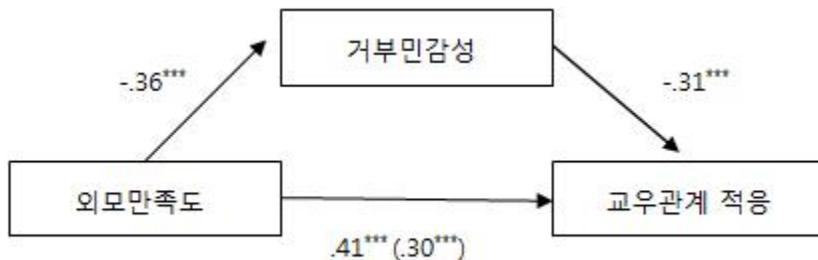
다.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F	R ²
			B	SE	β		
1단계	외모만족도	교우관계	.44	.06	.41***	58.19***	.17
2단계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2.37	.36	-.36***	42.58***	.13
3단계	외모만족도	교우관계	.32	.06	.30***	48.13***	.25
	거부민감성		-.05	.01	-.31***		

*** p <.001



[그림 3]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p <.001

<표 6>을 보면, 1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41, p<.001$), 교우관계 적응 변량의 17%($F=58.19,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6, p<.001$), 거부민감성 변량의 13%($F=42.58,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외모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beta=-.31, 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외모만족도가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였으나($\beta=.30, p<.001$),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41에서 .30으로 감소하였다.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4.23, p<.001$). 그러므로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라.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R ²
			B	SE	β		
1단계	외모만족도	학교수업 적응	.49	.06	.47***	80.47***	.22
2단계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2.37	.36	-.36***	42.58***	.13
3단계	외모만족도	학교수업 적응	.38	.06	.36***	60.45***	.30
	거부민감성		-.05	.01	-.30***		

*** p <.001



[그림 4]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p <.001

<표 7>을 보면, 1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학교수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47, p<.001$), 학교수업 적응 변량의 22%($F=80.47,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6, p<.001$), 거부민감성의 변량을 13%($F=42.58, p<.00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외모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학교수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beta=-.30, p<.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외모만족도가 학교수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나($\beta=.36, p<.001$), 학교수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47에서 .36으로 감소하였다. 거부민감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간

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4.41, p<.001$).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마. 외모만족도와 학교규칙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학교규칙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외모만족도와 학교규칙 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F	R ²
			계수	SE	β		
			B	SE	β		
1단계	외모만족도	학교규칙 적응	.31	.06	.31***	30.31***	.10
2단계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2.37	.36	-.36***	42.58***	.13
3단계	외모만족도	학교규칙 적응	.31	.06	.30***	15.13***	.10
	거부민감성		-.00	.01	-.01		

*** p <.001

<표 8>을 보면, 1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학교규칙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1, p<.001$), 학교규칙 적응 변량의 10%($F=30.31, p<.00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만족도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6, p<.001$), 거부민감성을 13%($F=42.58, p<.00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단계 외모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학교규칙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므로, 외모만족도와 학교규칙 적응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IV. 논 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밝혔지만, 외모만족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라는 심리적 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는 낮은 외모만족도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복 소재 2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외모만족도는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김정희, 이지연,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송연수, 2009; 전은혜, 2013; 채지연, 2014)는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신의 외모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을 타인에게 수용 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외모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 총점 및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마음먹은 바를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의사소통 능력, 친구와의 친근감, 친구와 바라던 관계가 이루어져 흐뭇하게 여기는 만족감, 친구를 믿는 신뢰감이 높으며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들(심경옥, 2006; 이미자, 2004; 이언숙,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거꾸로,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모로 인해 차별과 놀림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수치심과 열등감, 부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 부족과 자기표현의 두려움으로 이어져 학교생활부적응의 경향이 높아진다(김은경, 2005; 한미라, 1996)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외모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고, 학교 수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학교생활적응 총점 및 하위요인들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모둠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며, 자신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업이나 교내 활동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불안해 하는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기를 어려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수정, 2013)를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타자인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권금진, 2009; 문은식, 김충희, 2002; 이애옥, 2008; 이원이, 김동일, 2009),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지 않고(장미

회, 이지연, 2011),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지연, 2012)는 선행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만족도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사춘기에는 고학년이 될수록 외모만족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점(김은경, 2005; 심경옥, 2006; 이주아, 2005; 조영미, 2005)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낮아진 외모만족도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초등학생의 신체상 개선이나 외모만족도 향상을 위해 합리적 정서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김귀란, 유형근, 신효선, 2009; 이현정, 2009), 또래상담 프로그램(홍미경 2009),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김형미, 2011)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외모만족도의 향상은 물론 학교생활적응과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외모만족도 향상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감정 또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한 인지행동상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므로(신명희 외, 2013), 외모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편견, 선입견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사고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행동적 개입이 유용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예,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 외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초등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외모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접근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하여 상처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남긴 상처를 충분히 공감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생각 역시 모두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노력이나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외모에 대하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는 인성교육은 아동들이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거나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되고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이해와 수용,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구미선, 2012; 권금진, 2009; 이에옥, 2008; 채지연, 2014).

본 연구에서 확인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교육적·상담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다면 낮은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절당함으로써 형성된 거부민감성이 어떠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기격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나영, 2009; 문희경, 2013)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 상황에 대해 반추하기, 타인비난, 자기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강은영, 2013)는 연구결과는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조망해 줌으로써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Downey et al.(1998)은 공격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모호한 행동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귀인하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의 공격 성향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Hudley & Graham, 1993)와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입은 기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Egeland, Jacobvitz, & Sroufe, 1988; Patterson, Cohn, & Kao, 1989)에 근거하여 이러한 거절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들이 가족이나 교사,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타자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랑이나 인정, 기쁨과 즐거움, 친밀함,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거절에 대한 예상 외에도 거절에 대한 예기 분노 반응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동들을 조절하는 자기규제 능력(self-regulatory competencies)은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yduk et al.(2000)은 유년기에 측정된 만족지연(delayed gratification)을 자기규제 능력의 지표로 보고, 이러한 만족지연 능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만족지연 능력을 가졌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갖는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self-worth), 스트레스 조절 전략 등의 긍정적 기능(positive function)의 지표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만족지연 능력을 가졌던 아동들의 경우, 성인기에 측정된 거부민감성이 앞서 언급한 긍정적 기능의 지표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결국, 유년기에 만족지연 능력이 높았던 사람들에게서는 거부민감성의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Ayduk et al.(200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졌지만 만족지연 능력이 높은 아동들을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규제 전략으로서의 만족지연능력이 거부민감성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학령기 이전에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 다른 자기규제 전략으로 Mischel et al.(1996)은 거절에 대한 단서를 찾기보다 그러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거절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주의력 조절 전략(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이 만족지연을 도우며, 자아개념과 또래 수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공격성을 낮추어 줌으로써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상황적인 정보 등 비거부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에서 거절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거절에 대한 예기 분노를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하는 충동을 가라앉히는 등의 자기규제 전략은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Ayduk et al., 2000). 따라서 자기규제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전략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거부민감성은 외모만족도와 교사관계, 외모만족도와 교우관계, 외모만족도와 학교수업 적응의 관계를 각각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개념화된 구인이며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이 각각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점(김균량, 이완정, 2008; 김형미, 2011; 심경옥, 2006; 장미희, 이지연, 2011; 정지연, 2012; 조미라, 2011; 하정혜, 2011)에 비추어 볼 때, 외모만족도는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대인관계 관련 변인인 교사 및 교우관계 적응에 영향을 주며 이들과 함께 하는 학교수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학교규칙 적응에 대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owney et al.(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인 요인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인지는 향후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규칙 적응이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지-정서적 처리 성향을 의미하는 거부민감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학교규칙 적응은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규칙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통제적 측면을 측정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변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외현화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주로 내현화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김나영, 2009; 서운경, 2003; 심경옥, 2006) 규칙 적응과는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 적응도 개념적으로는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은 중등학교의 수업과는 달리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풍부하다는 점(홍성훈, 김희수, 2005)을 감안한다면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수업 적응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외모만족도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은 향후 연구 수행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령과 지역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부민감성 평균이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거부민감성 경향이 뚜렷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 외모나 다른 문화적 배경, 더딘 학업 성취 등으로 인해 차별과 거절의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거부민감성의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 설정되는데(김정남,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는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건강과 같은 개인적-정서적 적응이나 학교에 대한 애착과 같은 학교 소속감에 해당되는 적응 요인(Baker & Siryk, 1984)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석률이나 학업성취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학교생활적응의 지표로 사용(이규미, 2004)하는 것도 측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잠재적 매개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사회적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매개모형이 설정되었고, 횡단적 상관연구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모만족도, 거부민감성, 학교생활적응 순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확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외모만족도와 거부민감성에 대한 실험적 조작을 통한 연구나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장은영(2013).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고두훈(2008).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공영길(2009).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구미선(2012).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권금진(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초등교육학연구**, 16(2), 21-40.
- 김경아(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귀란, 유형근, 신호선(2009).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 및 사회적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놀이중심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1), 157-168.
- 김균량, 이완정(2008). 아동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 만족도에 따른 자기표현과 대인불안. **아동과 권리**, 12(4), 567-584.
- 김나영(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복숙(2008).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행동 특성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미(2006). 중학생의 학교 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래(1993). 학업성취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 (2011). 폭력적인 양육환경이 정보처리과정을 매개로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2), 161-181.
- 김은경(2005).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남(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 김정희, 이지연(2010).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3), 3-14.
- 김현자(1999). 초등학생의 사회적 귀인 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교육**, 8(2), 49-62.
- 김형미(2011). 외모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애리, 송원영(2013).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2), 345-365.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 153-167. 충남대학교 교육발전 연구소.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문희경(2013). 고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우람, 홍상환(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14(1), 1-23.
- 박우철(2009).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자존감, 가족의 신체비판 및 미디어노출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지윤(2003).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미향(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학교생활적응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손은경(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송연수(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2013).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심경옥(2006).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우엽(2012).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 관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교원교육**, 28(2), 101-121.
-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체계와 학급응집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2), 185-207.
- 이강녕(2005).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이 신체만족, 자기표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화(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규미(2004).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규옥(2009). 청소년기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명숙, 이규민(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 이미자(2004). 비만아동의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정(2013). 모애착, 거부민감성,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애옥(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언숙(2007). 초등학생의 외모만족과 성이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미(2004). 아동의 체형 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학회지*, 42(8), 133-145.
- 이원이, 김동일(200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Wee School, 공립위탁형 대안학교 및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연구. *열린교육연구*, 17(4), 89-118.
- 이윤정, 정찬주(2009).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 외모관리 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실과교육연구*, 15(4), 85-104.
- 이주아(2005). 아동기의 외모만족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현정(2009). 초등학교 비만여학생의 신체상·또래관계 개선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희, 이지연(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전은혜(2013).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및 자기 격려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연(2012).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 또래관계 양과 질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화실(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조미라(2011). 초등학생 남녀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또래관계, 자존감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영미(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채지연(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천석우(2009). 교사 리더십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최미라(2009). 초등학생의 외모만족과 사회불안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민호(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비합리적 신념 및 외모만족도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하정혜(2011).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상숙(2006). 초등학생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개념,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정문, 김정엽(2012). 농촌 중학생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329-356.
- 홍미경(2009).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 향상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상황, 박혜정(2013).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4(2), 59-74.
- 홍상황, 이경연(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 홍성훈, 김희수(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6(1), 33-53.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 Downey, G.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Dodge, K.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wney, G., &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231-247.
- Downey, G., & Feldman, S. (1996). The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61.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Egeland, B., Jacobvitz, D., & Sroufe, L. 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59, 1080-1088.
- Fang, A., Asnaani, A., Gutner, C., Cook, C., Wilhelm, S., & Hofmann, S. G. (2011).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5(7), 946-949.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 124-138.
- Jones, D. C. (2004). Body image and the appearance culture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323-399.
- Mendelson, B. K., & White, D. R. (1993).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ischel, W., Cantor, N., Feldman, S. (1996).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The nature of willpower and self-control.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29-360). New York: Guilford Press.
- Murphy, J. J. (2008). *Solution-focused counseling in school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Patterson, C., Cohn, D., & Kao, B.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21-38.
- Scott, R., & Scott, W. A. (1998). *Adjustment of adolescents: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ew York: Routledge.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접수일 2015년 9월 20일 / 수정일 1차 2015년 12월 20일, 수정일 2차 2016년 1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5일
 - 교신저자 : 장유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사범대학 4층, nowiamhere@wku.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Park, Jinhee* · Jang, Yoojin**

Irinam Elementary School* · Wonkwang University**

Building on previous studies that highlight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was done with the objective of discovering various ways for helping them successfully adjust to school. The survey instruments were administered to 289 sixth grader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onbuk Province,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the scales and their sub-scales were obtained,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also calcula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search variables (appearance satisfac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see if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s the relation of appearance satisfaction to school adjustment. The Sobel test was th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t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ach of the three subscales of school adjustment (teacher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in-class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needed to dampen the negative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ing low appearance satisfaction, as well as to enhance appearance satisfaction for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rejection sensitivity,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